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참 고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월 1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7.(목) 15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. 17(목)	담당부서	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
담당과장	손호영 과장(044-203-5530)	담 당 자	이민호 사무관(044-203-5533)

산업부 공공기관,
안전 중심으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 다짐
-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최 -

□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'19.1.17.(목)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,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진이 책임지는 자세로 엄중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범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,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- 현재,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보유 시설에 대해 화재, 추락 등의 위험요인을 지난 12월부터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,

- 특히,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을 보유한 기관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이 작업방식과 환경, 매뉴얼, 인력배치와 시설·장비의 운영 등 포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.

<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요 >

- **일시/장소 : '19.1.17.(목) 15:00~16:00 /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**
- **참석자 :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**(주재), **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**
- **논의사항 :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시설·작업장 안전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**

□ 정승일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"주요 에너지 시설에서의 사고는 국민의 생명,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될 수 없으며,

○ 안전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들은 발견 즉시 원칙에 따라 제거하고,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"하였다.

○ 특히, 지난 월요일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 중심으로 평가하고, 사고 재발 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점을 강조하며,

- "공공기관 경영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, 단 한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기관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시설·작업장 현장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"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민호 사무관(☎ 044-203-55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